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



▶ 9회 예고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을 따라 반란이 일어난 탁실라로 떠난다. 탁실라 가는 길에 소국 왕들에게 환영받는다. 빈두사라왕은 마침내 탁실라의 반란을 진압한다. 다르마는 날마다 빈두사라왕의 옷에 묻은 피를 보다가 왕자를 낳는다.

왕자 잉태하고 전장 가는 왕비

다르마는 마침 비어 있는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별궁은 빈두사라왕의 침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별궁에는 이전의 왕비가 사용하던 패물과 장롱 속의 옷가지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그 왕비가 병사하자 빈두사라왕은 애석한 나머지 그녀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단 하나도 치우지 말라고 명했던 것이다.

별궁 앞에는 연못이 두 개나 있었다. 하나는 백련 연못이었고, 또 하나는 홍련 연못이었다. 일년 내내 흰 연꽃과 붉은 연꽃이 번갈아가며 피고 졌다. 마당가 정원과 후원에는 온갖 꽃들이 까치나 노랑할미새를 불러 들였다. 할미꽃 같은 선홍빛 파파벨라, 낮은 담을 덮은 부겐빌리아, 안개초, 절꽃(Temple Flower)이라 불리는 플루메리아 꽃 등이 꽃동산을 이뤘다. 특히 붉은 꽃이 별궁으로 드는 대문 앞에 떨어져 있을 때는 짬빠성의 고향집 생각이 났다. 다르마는 행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나사나와 빵갈로바뜨사를 떠올리며 고마워했다. 다르마가 왕비가 된 것은 두 수행자의 진심과 신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터였던 것이다. 다르마는 늙은 궁녀 한 명과 함께 플루메리아 흰 꽃을 줍고 있는 락슈미띳사를 불렀다. 그녀가 물었다.

"왕비님, 벌써 가실 거예요?"

"그 정도 꽃이면 공양 올리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락슈미띳사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는 플루메리아 흰 꽃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향기가 다르마의 코를 기분 좋게 자극했다. 아지비까교 사원으로 가서 빵갈로바뜨사에게 공양할 꽃이었다. 별궁 궁녀를 미리 보내 약속한 날이므로 빵갈로바뜨사는 사원에 있을 터였다. 다르마로서는 별궁에 들어온 이후 첫 외출이었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왕비님, 제 생각으로는 대왕님께서 오실 것만 같은데 꼭 오늘 가셔야 돼요?"

"대왕님께서는 밤에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 괜찮을 거야."

다르마는 호수 같은 푸른 비단 사리를 걸치고 있었다. 왕비가 되었을 때 빈두사라왕이 선물한 까시국에서 구해온 번들거리는 비단 사리였다.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앞세우고 아지비까교 사원이 있는 숲으로 갔다. 열려섯 번째 왕비가 온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사원 기도처에는 수행자들이 줄을 지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빵갈로바뜨사는 반얀나무 아래서 몇몇 수행자들과 함께 주문을 외우고 있는 중이었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에게 먼저 가서 그의 발밑에 플루메리아꽃을 바쳤다. 꽃향기가 반얀나무 가지 사이로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빵갈로바뜨사가 매우 기뻐하며 뚱뚱한 몸을 일으켰다.

"왕비시여, 꽃공양이 아니라 향공양이구먼요."

"평소에 공양 받지 않으시니 향기로운 꽃을 모아 왔습니다."

"대왕님께서 날마다 끼니공양을 올리시니 저희들은 필요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를 궁으로 인도하신 구루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왕비시여, 자나사나와 저는 왕비님의 운명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예언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그런데 다르마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왕비시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뵙지 못할 것 같아서 서둘러 왔습니다."

"대왕님께서 또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빈두사라왕은 소국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왕비를 한 명 데리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다르마 차례인가 싶어 물었다.

"당장에 떠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기도할 때입니다. 제 눈에 대왕님과 왕비님이 북서쪽으로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우리아왕국을 세운 짠드라굽따 선왕이 정복한 탁실라는 빠딸리뿌뜨라에서 북서쪽에 있었다. 먼 곳이어서 반란이나 소요가 자주 일어나는 소국이었다. 빈두사라왕이 탁실라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까닭은 선왕의 비원이 서려 있기 때문이었다. 짠드라굽따 왕이 탁실라에서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침략군을 마저 진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우리아왕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탁실라를 잃거나 소요를 방치한다면 선왕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백성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왕의 권위는 추락할 것이 뻔했다.

"구루시여,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저는 당분간 구루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옆에 있던 락슈미띳사도 처음 듣는 말이어서 빵갈로바뜨사 못지않게 궁금했다. 빵갈로바뜨사가 다시 말했다.

"왕비시여,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빠딸리뿌뜨라가 좋으니까 떠나기 싫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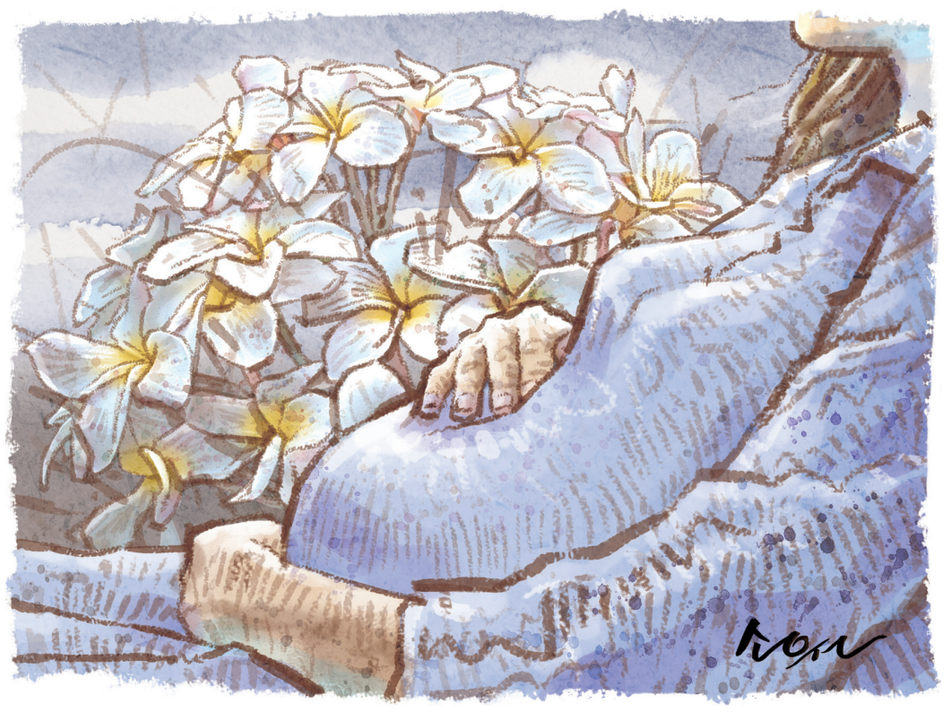
빵갈로바뜨사는 다르마를 돕고 싶어서 물었다. 그러나 다르마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제야 영리한 락슈미띳사는 다르마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빵갈로바뜨사를 당분간 만나지 못할 만한 변화가 있음이 분명했다.

"구루시여, 제 운명을 다 아시면서 어째서 저에게 생긴 변화는 알지 못하십니까?"

"저의 수행이 부족해서 그러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원을 참배했으니 저는 이만 별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지비까교 사원을 나온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바로 별궁으로 가지 않고 예전에 강가강을 바라보곤 했던 궁중정원 언덕으로 올라갔다. 부겐빌리아 가지들이 덩굴처럼 얽혀 있어 은밀한 곳이었다.



"강가강을 보고 싶어."

"예, 왕비님."

부겐빌리아꽃들이 풀밭에 떨어져 꽃방석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락슈미띳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왕비님, 좋은 변화예요, 나쁜 변화인가요?"

"좋은 변화이지."

다르마가 갑자기 푸른 비단 사리를 가슴 위로 걷어 올렸다. 락슈미띳사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나!"

"내 배를 좀 봐."

다르마의 배는 이미 볼록했다. 왕자를 잉태하고 있었다. 락슈미띳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천한 제가 봐서는 안 되겠어요, 왕비님."

"넌 내 수족과 같으니 괜찮아."

"아니에요, 대왕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하늘이 보고 강가강이 봤어요."

"락슈미띳사여, 내가 허락했으니 괜찮을 거야.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다르마가 왕자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왕비들의 견제가 심해질 수도 있었다. 특히 '빠빠왕비'가 자신의 궁녀들에게 지시하여 모사를 꾸밀 것이 틀림없었다.

"강가강은 우리의 엄마니까 다 눈감아 주실 거야. 자, 더 가까이 와봐."

다르마가 락슈미띳사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에 댔다. 락슈미띳사는 뿌리쳤으나 그녀의 손은 이미 다르마의 배에 닿아 있었다.

"왕자가 발로 툭툭 차고 있어."

"네. 느껴져요."

"다섯 달 정도 남았어."

"왕비님, 이제야 알았어요. 왕비님께서 왜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서둘러 만나시려고 했는지요."

"왕자님이 더 자라면 배가 불러 어떻게 다니겠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이제는 외출하시지 마셔요."

다르마는 배가 부르면 소문이 나 다른 왕비들의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락슈미띳사가 강가강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다. 그 사이에 다르마는 서너 걸음 앞서 별궁으로 내려갔다. 락슈미띳사가 뛰듯이 잰 걸음으로 뒤따라갔다. 다르마가 입고 있는 비단 사리에는 부겐빌리아꽃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왕비님 사리에 꽃들이 붙어 있어요. 뗄까요?"

"아니, 내가 뗄게."

아무리 시중드는 시녀라 하더라도 왕비의 몸에 천한 수드라 신분의 궁녀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그러진 흰 꽃은 떨어지지 않았다.

"얼룩이 지겠어요, 왕비님."

"그럼, 네가 떼어다오."

락슈미띳사가 사리에 붙은 꽃들을 떼었다. 별궁으로 돌아온 다르마는 대나무 침대에 누워 쉬었다. 왕자를 잉태해서 그런지 아지비까교 사원을 들렀다가 궁중정원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도 힘들었다. 락슈미띳사가 끓여온 짜이 한 잔을 하고 나서야 대나무 침대에서 짧지만 깊은 낮잠을 잤다.

그날 밤 빈두사라왕이 별궁에 들었다. 순간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의 예언이 생각나 긴장했다. 빈두사라왕과 다르마가 북서쪽으로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던 것이다.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의 입을 주시했다.

"왕비여,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소?"

"왕자님에게 새소리도 들려주고 꽃도 보여주고 있사옵니다. 제가 새소리를 들으면 뱃속의 왕자님도 듣고 제가 꽃을 보면 왕자님도 꽃을 본답니다."

"허허허."

빈두사라왕은 태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다르마가 뱃속의 왕자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에 감격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나 역시 왕자를 위해 다 들어주리다."

"매운 칠리소스를 먹고 싶사옵니다."

"왕자가 맵다고 하지 않겠소? 하하하."

빈두사라왕은 별궁에서 밤을 보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다르마의 배를 만져 보곤 했다. 이른 새벽쯤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침대 머리맡에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다르마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물었다.

"궁에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요."

"불길한 일이옵니까?"

"어제 신하로부터 탁실라에 소요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소."

"그럼 탁실라로 가실 것이옵니까?"

"선왕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가야 하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의 예언에 소름이 끼쳤다. 그래도 자신은 궁에 남고 싶었다. 먼 길을 가다가 뱃속의 왕자가 유산될지도 몰랐다.

"저는요?"

"물론 함께 가야 하오."

"왜 가야 합니까?"

"내가 없는 빠딸리뿌뜨라 성은 위험하오. 무슨 음모가 꾸며질지 모르오. 그러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왕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오."

"언제 떠납니까?"

"출발 날짜는 비밀이오."

다르마는 눈앞이 노래졌다. 짬빠성에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니 그만큼 충격이 더 컸다. 빈두사라왕은 곧 궁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다르마는 대나무 침대에 혼절하듯 쓰러졌다. 락슈미띳사가 뛰어 들어와 흔들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아침 해가 강가강에 난반사할 무렵에야 다르마는 일어났다. 외성 안에 갑자기 불어난 군사들의 구령소리가 내성 안까지 들려왔다. 각 소국에서 차출한 장졸들이었다. 탁실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정예군이었다.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는 내성 안에서 따로 진압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계속〉